

AI 는 도입했는데 왜 성과가 없을까 — AX 실패 원인과 성공 5 단계

① 오늘의 기술사업화 뉴스

- (AI 전환 실태) **AI 도입 기업 88%, ROI 입증은 단 5%** — 맥킨지·MIT 가 확인한 '**AX 역설**' — 맥킨지 2025 년 11 월 글로벌 서베이에 따르면 AI 를 전사 규모로 확산한 기업은 전체의 1/3 에 불과하고, 나머지 2/3 는 여전히 파일럿 단계에 머물. MIT 2025 년 7 월 보고서(The GenAI Divide)는 생성형 AI 시범과제의 95%가 손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분석. Microsoft 3 만 1,000 명 조사에서도 직원 90% 이상이 AI 를 개인적으로 쓰지만 기업 공식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'새도우 AI' 문제가 확인됨. 기술을 '**보유**'하는 것과 '**성과로 연결**'하는 것은 전혀 다른 역량. <출처: 맥킨지「State of AI」(2025.11)·MIT「The GenAI Divide」(2025.07)·Microsoft「Work Trend Index」(2025)>
- (AI 전환 동향) "**AX 에 실패하는 기업들, 도입 넘어 운영 재설계가 필수**" — 아주경제 분석(2026.05.11)에 따르면 AI 전환에 실패하는 기업의 공통점은 기술이 아닌 **운영 재설계 부재**. AI 를 기존 업무에 얹기만 하고 프로세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파일럿 단계를 벗어나지 못함. BCG 조사(11 개국 1 만 635 명)에서도 AI 고성능 기업은 비용 절감이 아닌 '업무 흐름 재설계'를 핵심 전략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. **도입은 쉽고 전환은 어렵다 — 차이는 설계에 있다.** <출처: 아주경제·BCG「AI at Work」, 2026.05.11>
- (정부 정책) **중기부, AX 원스톱 바우처로 중소·중견기업 AI 전환 비용 통합 지원** — AI·클라우드·데이터 기반 도입 비용을 단일 바우처로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, AI 개발·GPU 활용·SaaS 전환·데이터 가공을 한 번에 처리. 국내 중소기업 AI 활용률은 5.3%에 그쳐 도입 비용과 전담 인력 부재가 주요 장벽으로 꼽힘. **기술이 아니라 비용과 설계 역량이 중소기업 AX 의 실질적 병목.** <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AX 원스톱 바우처 지원사업, 2026>
- (AI 에이전트 성과) **에이전틱 AI 전면 도입 기업 생산성 200% 향상** — 단순 생성 AI 와 차이 뚜렷 — 단순 생성형 AI 도입으로 개발자 생산성 30% 향상에 그친 반면, 자율 AI 에이전트(에이전틱 AI)를 도입하고 업무 흐름 전체를 재설계한 기업들은 200% 이상 향상을 보고. LG 전자 '찾다' 플랫폼, 채널코퍼레이션, 야놀자 등 국내 선도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내재화. **차이는 도구가 아니라 프로세스 재설계의 깊이.** <출처: SK AX 인사이트·MIT Technology Review, 2026>

② 오늘의 한 조각 — AI 도입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순서부터 바꾸십시오

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. **AI 도입 기업 88%가 ROI 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, '기술 먼저·목적 나중'이라는 순서 때문입니다.** 맥킨지 2025 년 보고서에 따르면 AI 를 전사 규모로 확산한 기업은 전체의 1/3 에 불과하고, MIT 2025 년 보고서는 생성형 AI 시범과제의 95%가 손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바뀝니다.

AX(AI Transformation)는 AI 라는 도구를 구매하는 일이 아닙니다. 자동차를 한 대 사는 것이 AI 도입이라면, 도로를 깔고 신호체계를 바꾸고 사람들의 이동 방식을 재편하는 것이 AX 입니다. 대부분의 기업은 자동차를 사고 AX 를 했다고 착각합니다. 아래 표를 보면 '구매'와 '전환'이 얼마나 다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AI 구매 (실패 패턴)	AX 전환 (성공 패턴)
출발점	"어떤 AI 를 써볼까" — 도구 먼저	"무엇이 가장 비싸고 느린가" — 문제 먼저
업무 방식	기존 흐름 위에 AI 를 추가	AI 를 전제로 흐름을 백지에서 재설계
성과 측정	계정 수·사용률·절약 시간 보고	손익계산서의 숫자 변화로 측정
추진 주체	IT 팀 단독 진행	CEO 의지 + 현업 부서 오너십
결과	파일럿은 성공, 전사 확산 실패	업무 단계 축소·제거, 손익 변화

핵심은 '더하기'가 아닌 '덜어내기'입니다. 기존 5 단계 업무에 AI 를 없으면 6 단계가 됩니다. 성과를 내는 기업은 AI 를 전제로 5 단계를 2 단계로 줄이거나 아예 없앱니다. 개인이 아낀 30 분이 다른 잡무로 채워지는 한, 손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.

AX 성공 방법론 — AI 도입이 성과로 이어지는 5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문제 정의 — '지금 가장 비싸고 느리고 반복적인 업무 Top 3'를 먼저 찾는다. AI 를 어디에 쓸지가 아니라, 데이터가 쌓이는 반복 업무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.
 2. 프로세스 재설계 — AI 를 전제로 업무 흐름을 백지에서 다시 그린다. '이 단계, AI 가 대신하면 없애도 되는가?'를 모든 단계마다 묻는다. PI(프로세스 혁신)가 다시 중요해지는 지점이다.
 3. 데이터·인프라 정비 — AI 가 읽을 데이터를 먼저 구조화하고 시스템을 연결한다. 비정형 문서(이메일·HWP·PDF)의 파이프라인을 선설계하지 않으면 파일럿은 항상 전사 확산 단계에서 멈춘다.
 4. 성과 지표 재정의 — 사용률이 아니라 '손익계산서의 어느 숫자가 달라지는가'로 측정 기준을 바꾼다. 직무별 KPI 를 각각 설정해야 한다(개발자 ≠ 영업 ≠ 제조 현장).
 5. 주체·권한 확보 — CEO 의 공개적 지지만으로 구성원 긍정 인식이 15%→55%로 오른다(맥킨지). 업무를 덜어내는 결정은 팀 단위 권한 밖의 일이다. 현업 부서 오너십과 전담 AX 책임자를 동시에 세워야 전환이 완성된다.
- AI 도입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, 기술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. 어디서 막혀 있는지 진단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※ 출처: 맥킨지「State of AI」(2025.11) · MIT「The GenAI Divide」(2025.07) · BCG「AI at Work」(2025) · Microsoft「Work Trend Index」(2025)

③ 실전 체크리스트

✓ ③ AX 추진 전 실전 체크리스트

- ▶ AI 도입 전에 '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반복 업무 3 가지'를 팀 단위로 목록화한다
- ▶ 프로세스를 AI 를 전제로 처음부터 다시 그린다 (기존 흐름에 AI 를 얹지 않는다)
- ▶ 성과 지표를 '사용률·절약 시간'이 아닌 '매출·원가·처리 건수' 등 손익 연결 지표로 정한다
- ▶ 파일럿 시작 전에 KPI 3 가지와 측정 방법을 문서로 확정해 둔다
- ▶ CEO 또는 대표가 AX 추진 의지를 팀 전체에 공개적으로 선언한다
- ▶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쌓이고 있는지 현황부터 파악한다

④ 금주 전략 시사점

▶ AX 전환, 지금이 바우처 지원의 '골든타임'

중기부 AX 원스톱 바우처가 AI·클라우드·데이터를 통합 지원 중인 2026 년이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AX 전환 설계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적 시점입니다. 바우처 예산은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 주 내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. 기술을 갖추고도 AX 설계 역량이 없어 성과를 못 내는 기업일수록 외부 설계 지원과 바우처를 연계하는 전략이 가장 빠른 진입 경로입니다.

▶ 기술이전 협상, '가격' 이전에 '구조'부터 결정해야 손해 없다

이번 주 마감 공고 중 딥테크·기술창업 지원사업은 공공기술 이전을 전제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. 지원 신청 전 양도·전용실시권·통상실시권 중 어느 구조로 기술을 확보할지 먼저 결정해야 협상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계약 구조를 확정하지 않은 채 '얼마'를 논의하면 협상 주도권을 잃습니다.

⑤ 이번 주 마감임박 지원사업 (중앙정부 70% · 대전지역 30%)

- **[중앙]**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 차 민간 선별추천형 창업기업 모집 (**~07.31**) · 창업진흥원(KISED)
- **[중앙]**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기업모집 (**~07.31**) ·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- **[중앙]**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창업 경진대회 모집 (**~07.31**) ·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- **[중앙]** 방산혁신기업 기술개발 전용지원사업(군 수요연계형) 과제 제공모 (**~08.03**) · 국방기술진흥연구원(KRIT)
- **[중앙]**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수시형(2 차) 참여기업 모집 (**~08.03**) ·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
- **[중앙]** 2026 년도 인공지능 중심대학 2 차 선정공고 (**~08.04**) · 정보통신기획평가원(IITP)
- **[중앙]**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2 차 사업 공고 (**~08.04**) · 정보통신기획평가원(IITP)
- **[대전]** 소셜벤처 성장플랫폼 입주기업 추가모집 (**~07.29**) · 대전테크노파크
- **[대전]** 대전광역시-퀘벡주 양자산업 공동연구 사업 지원컨소시엄 모집 (**~07.31**) · 대전테크노파크
- **[대전]** 북미시장진출지원사업 KIC 실리콘밸리 K-Global 대전기업 모집 (**~07.31**) · 대전테크노파크

※ 07.29(수)~08.04(화) 마감 공고. 출처: 랩 위드 지원사업 브리핑 (2026.07.27 기준).

AI 를 도입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나요? 어디서 막혀 있는지 진단해 드립니다.

→ AX 진단·사업화 컨설팅 상담

상담 신청 ☎ 010-6408-8557 | antipoto@gmail.com | cafe.naver.com/techcomwith

▶ 더 보기: AX 성공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 (cafe.naver.com/techcomwith/239)

▣ 랩 위드 컨설팅 솔루션 — 사업화 전 단계를 전문가가 함께 설계합니다



랩 위드 AI R&D 전략 분석 플랫폼

"R&D 사업계획서, AI 로 구조화"

- 공고·RFP 분석 → 평가항목별 맞춤 전략 도출
- 정부 과제 DB 2,900+건·선행연구 검색
- 평가위원 관점 피드백으로 완성도 점검



IR 컨설팅 솔루션

"기업진단부터 모의 IR 까지 4STEP"

- 기업진단 → 투자전략 → IR Deck → 모의 IR
- 피치덱 10 장 구조·트랙션·Ask 설계
- 7 회차 온라인 관리로 단계별 코칭



기업진단 솔루션

"우리 회사 사업화 준비도 점수화"

- 기업정보·재무·기술개발·정성평가 종합
- 강·약점 종합 진단 리포트 자동 생성
- R&D·투자 준비 우선순위 제시

☎ 랩 위드 채널 — 지금 바로 연결하세요

랩 위드는 매일 중앙정부·대전지역 12 개 기관 지원사업을 수집·분류해 고객사에 전달합니다.

브리핑·인사이트·AI 분석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연결 — R&D·사업화 전략 수립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.



기술사업화 랩 위드(주) 조남주 대표이사 · 공학박사 · 전문개인(엔젤)투자자

☎ 010-6408-8557 | antipoto@gmail.com

대전 본사 (34897)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615 번길 56, 진호빌딩 301 호

홈페이지: www.labwith.kr 네이버 카페: cafe.naver.com/techcomwith